

# 퀘벡의 사회적 경제 : 고용·노동에 대한 시사점

Caitlin McMullin (Associate Professor, Aalborg University, Denmark)

## ■ 머리말

캐나다 퀘벡은 활발한 사회연대경제(SSE)를 구축해 왔다. 캐나다 전체 인구의 23%에 해당하는 800만 명이 거주하는 퀘벡은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다. 캐나다에서 불어 사용자가 다수를 이루는 유일한 주이며, 프랑스의 역사 및 다문화 전통과 연결된 풍부한 문화와 고유한 정체성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독특한 사회연대경제가 강력하고 제도화된 생태계로 성장했으며, 노동운동에 크게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퀘벡 지역의 노동 및 고용 관행을 형성했다.

사회적 경제의 핵심에는 노동자를 위해 더욱 공정한 경제를 실현하고 이익 축적에 앞서 사람과 노동을 우선시하고자 하는 열망이 자리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퀘벡 주민들에게 두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데, 지역 주민의 필요를 충족하는 다양한 사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기업을 설립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있다.

## ■ 퀘벡 사회적 경제의 역사

퀘벡의 협동조합과 지역사회단체는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북미 최초의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알려진 데자르탱(Desjardins)이 1900년 퀘벡에서 설립되었다. 노동조합은 여러 측면에서 퀘벡

사회적 경제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1980년대에 노동조합은 계약 협상 이상의 이슈들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일자리 창출과 시민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퀘벡 소재 기업 투자, 노동자 교육 및 연대 지원, 조합원을 위한 적정 은퇴 저축 옵션을 제공하는 연금 기금인 퀘벡연대기금(Quebec Solidarity Fund) 조성으로 이어졌다.

1995년 빈곤과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에 다다르자 퀘벡 전역의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주 정부에 사회서비스 투자와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주도인 퀘벡 시로 행진했다. 이에 주정부는 지역사회단체, 노동조합, 사용자, 사회운동 대표자를 다중 이해당사자 대화 프로세스에 초청하여 경제 및 고용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연석회의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는 퀘벡 주 전역에서 SSE 기업 설립 확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과 재정지원의 출발점이 되었다.

2013년 퀘벡 주정부는 사회적 경제 부문을 경제의 강력한 요소로 인정하고 금융 기제와 공공 정책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을 명시한 「사회적경제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사회적 경제 기업을 공식적으로 정의했으며, 각 부처 장관이 공공사업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조달할 때 SSE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과 퀘벡 주에서 시행되는 “사회적 경제 이니셔티브를 촉진”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퀘벡 주의 SSE는 1만 1,200개 기업이 480억 달러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다. 대부분 중소 규모이지만 일부 기업은 수백 명을 고용하고 있다. 퀘벡 지역 SSE 부문은 22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중 13만 5,300명은 비영리 조직, 3만 9,700명은 협동조합, 4만 5천 명은 금융협동조합 및 상호금융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즉 퀘벡 경제와 노동력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부문 중 하나가 바로 SSE이다. SSE 조직은 보육·사회부조(고용의 27%), 주거, 예술·문화, 레저, 농업,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퀘벡에서 사회적 기업의 생존율은 민간 기업보다 높는데, 사회적 기업 창업 5년 후 사업 존속률은 62%로 35%인 민간기업보다 우수하다. 퀘벡 주정부는 “사회적 경제 실천 계획(2020~2025)”에 따라 SSE 부문에 5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3,500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SSE 부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퀘벡 사회적 경제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많은 수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들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샹티에(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 이하 샹티에)”와 “퀘벡 협동조합 및 상호공제조합 위원회(CQCM)”는 SSE 부문의 이해를 대변하는 주정부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샹티에는 사회적 경제의 위상을 높이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주정부와 협력하여 SSE 기업 고유의 요구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적 금융 기제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노동과 고용 측면에서는 1997년에 설립된 “사회적 경제 노동인력 위원회(CSMO-ÉSAC)”가 SSE 및 지역사회단체들과 협력하여 SSE 노동력이 직면한 공동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하고 있다.

## ■ 주요 이슈 및 동향

### 공동소유

사회적 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조직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되지만, 퀘벡에서 SSE 조직으로 간주하려면 협동조합 또는 비영리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우대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동조합은 소비자 협동조합, 생산자 협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 연대 협동조합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그중 연대 협동조합은 서비스 사용자, 소비자, 노동자, 지역사회 지지 구성원의 세 집단 중 최소 두 집단을 포함한다. 이 요건에 따라 SSE 기업은 공동소유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회적 사명에 따라 사업 목표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초점이 약한 편이다. 예를 들어 미국(및 캐나다의 다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개념과 달리 퀘벡의 사회적 경제 모델은 연대에 초점이 맞추어진 집단적 기업가 정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과 비영리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공동소유의 중요성은 이들 조직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SSE 조직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SSE 노동력에 다양한 스킬과 역량이 요구된다. 특히 민주적 지배구조에 직원들이 어떻게 기여하는지가 핵심인데, 이는 대학 경영학 과정에서 반드시 가르치는 주제는 아니다.

퀘벡 SSE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민간기업 소유주가 은퇴하거나 사업이 실패할 경우 해당 기업의 노동자가 공동지분을 취득하고 해당 기업을 협동조합이나 비영리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이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동인수를 주창해 온 SSE 네트워크 조직의 로비 및 옹호활동의 핵심 영역이 되어 왔다. 퀘벡 주정부는 공동인수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등의 전문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과정을 지원한다.

### 사례 연구: 독립뉴스협동조합(CN2i)

최근 들어 지역신문의 생존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2019년 캐피털미디어그룹(Groupe Capitales Médias)의 파산으로 이 그룹에 속해 있던 퀘벡의 주요 지역신문 6곳이 폐간 위기에 처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하여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아 “나의 신문 협동조합(Coop mon journal)” 출범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에 착수했다. 그 결과 사회적 경제를 전문 분야로 하는 7개 대형 금융 파트너의 재정지원에 힘입어 퀘벡 최대 규모의 협동조합 언론 그룹이 탄생했다. 현재 이 협동조합은 35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조직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6개 신문사의 사업을 공동인수함으로써 노동자들은 미디어 부문의 다각화, 디지털화 및 혁신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점도 발생했는데, 인수 추진 과정에서 직원들은 연금 기금 손실과 임금 동결 등 상당 부분을 양보해야 했다.

SSE 기업을 포함한 많은 소기업의 주요 과제와 고민 중 하나는 소유주 은퇴 시 리더십 승계 문제와 사업체의 위기이다. 2000년 초 파산 위기에 처했던 몬트리올 소재 극장인 시네마 보비엥(Cinéma Beaubien)이 이에 속했다. 지역주민, 사업가 및 정치인이 힘을 모아 극장을 폐쇄 위기에서 구해내고 비영리조직으로 전환시켰다. 공동인수 이후 극장 직원은 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으며, 인근에 상점, 식당, 술집 등이 문을 열면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일자리도 창출되었다.

## 고용 및 노동 조건

사회적 경제에서 비영리조직과 협동조합의 공동소유는 여러 측면에서 더 나은 조건의 노동환경을 제공한다. 퀘벡의 많은 노동자가 사회적 경제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목표와 함께 사회적 사명 및 사회 통합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SSE 조직은 일생활 균형에 더욱 집중하고 원격근무, 유연근무 등 유연한 노동조건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SSE 노동자는 높은 수준의 업무 자율성과 과제의 다양성을 누린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더해져 직장에서 높은 수준의 직원 행복과 웰빙이 형성된다. 따라서 노동자는 공동소유를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일, 더 높은 수준의 공정과 평등, 더 많은 자유 등의 혜택을 얻게 된다.

또한 포용의 가치는 SSE가 장애인, 이민자, 장기 실업급여 수혜자 등 일자리 시장에서 가장

---

동떨어진 집단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엄밀히 말해서 모든 SSE 기업이 “노동통합” 사회적 기업은 아니지만 포용의 가치는 널리 확산되어 있다. SSE 기업 중 23%가 노동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며 20%는 1명 이상의 이민자를, 11%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 사례 연구: 리사이클링 바니에(Recyclage Vanier)

퀘벡의 사회적 경제 기업 중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퀘벡 내 49개 노동통합 기업 중 하나인 리사이클링 바니에는 1984년부터 퀘벡 시의 기밀문서를 수거, 파쇄 및 재활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리사이클링 바니에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이들에게 훈련 및 정부지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삼는 동시에,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28주간의 유급 훈련과정 참여자는 노동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스킬을 익힐 수 있다. 파쇄된 기밀문서는 재생용지로 재활용되어 순환경제에 기여하고 폐기물을 줄인다. 리사이클링 바니에는 1,700명 이상이 일자리 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해 왔으며 연간 1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퀘벡 여성 고용의 중요한 원천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0년대 퀘벡에서 여성의 고용 기회와 사회서비스 확대를 요구했던 행진이 사회적 경제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 수립을 견인했다. 현재 여성이 SSE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보다 훨씬 높고(전일제 중 71%, 시간제 중 57% 차지), SSE 기업의 관리직 중 65%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전일제 기준으로 남성의 임금이 여성보다 평균 2% 높아 남녀 간 임금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다른 부문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SSE 기업 전반에서도 급여가 공평하게 지급되는 편인데, 대부분의 기업에서 가장 높은 직급의 급여는 가장 적은 급여의 두 배를 넘지 않는다.

하지만 연대, 공동소유, 경제 민주화라는 중요한 정신에도 불구하고 퀘벡의 SSE는 민간기업이나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비해 뒤처지는 등 노동조건 측면에서 몇 가지 약점을 안고 있다. SSE 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 정신이 많은 퀘벡 주민들, 특히 청년 대졸자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반면, SSE 부문은 임금이 더 낮고 계약기간이 짧으며 보험과 퇴직연금 등의 사회보장이 미흡하다. 이는 SSE 조직이 겪는 자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퀘벡의 사회연대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전 세계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은 SSE 노동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팬데믹 이전에도 SSE 부문의 일자리 부족과 불완전 고용에 문제가 있었지만 코로나19가 이를 악화시켰는데 특히 자격을 갖춘 노동력 부족 문제가 더욱 그러했다. 2020년 말 CSMO-ÉSAC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에 SSE 조직 중 4%가 영구 폐업했으며, SSE 조직당 전일제 정규직은 평균 10명에서 7명으로 감소했다.<sup>1)</sup> 그러나 그와 동시에 많은 SSE 기업이 팬데믹 기간 동안 신규 직원을 채용했는데 이들 중 많은 수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는 팬데믹 기간에 필수 서비스 수요가 급증한 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팬데믹 이후 SSE 부문은 다소 회복되었지만, 사회적 경제의 연간 이직률은 평균 31%로 상당히 높다(인적자원 전문가가 권장하는 이직률인 16%의 약 두 배). 2022년에는 SSE 조직 중 74%가 1개 이상의 공석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으며(전년도 31%), 사회적 경제 일자리의 공석률은 21%로 퀘벡 전체 평균인 5.1%와 크게 대조되었다.<sup>2)</sup> SSE 부문의 고용에서는 때때로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많은 조직이 공석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 고용 불안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는 필수 서비스의 연속성과 공정하고 공평하며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SSE 부문의 고용에 투자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경제의 오랜 역사와 폭넓은 범위가 해당 부문을 넘어 일반적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왔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실제로 사회연대경제의 주요 사명 중 하나는 더욱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를 광범위하게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특히 (실업률이 높은 경향이 있는 인구 집단인) 젊은 층에게 호소력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SSE 노동력은 다른 경제 부문에 비해 연령이 낮고 퀘벡 SSE 종사자의 3분의 1은 35세 이하이다. 샹티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젊은 층의 82%가 일자리 선택에 있어 중요한 가치로 사회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꼽았다. CSMO-ÉSAC은 이러한 유형의 조직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1) Binhas, L.(2020), “Sondage éclair juin 2020: Les effets de la pandémie de la COVID-19 et les défis de relance dans le secteur d’emploi de l’action communautaire et de l’économie sociale”, <https://www.csmoesac.qc.ca/> (2023.9.13).
- 2) Binhas, L.(2023), “Enquête repères 2022: Quelques faits saillants”, <https://www.csmoesac.qc.ca/> (2023.9.13).

---

## ■ 맺음말

퀘벡의 사회적 경제는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문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왔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은 계속될 것이다. 노조와 지역사회 운동이 사회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이 부문에 속한 조직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노력의 중요한 지렛대가 될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최전선에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동향을 예측하는 등 사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SSE 기업은 공익을 위한 혁신을 위해 공동소유의 힘을 활용하며 지속가능한 전환, 서비스 설계, 순환경제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KLI**